

지 상 범 석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5)

諸賢頌句 (제 현승구) ②

鐵牛不餓獅子吼 恰似木人見花鳥
철우불과사자후 흡사목인견화조
木人本體自無情
목인본체자무정

동산화상사제
不求名利不求榮 只願隨緣與此生
불구명리불구영 지마수연도차생

쇠소는 사자의 으르렁 소리를 두려워
하지 않는지라(마음에 잡시의 흔들림도
없으니 경계가 요란한들 미동도하지 않
는지라) 흡사 나무사람(장승)이 꽃과
새를 보는데 같다(부동심·평상심이라)
나무사람의 본체인 스스로 정과 식이
없으니(오오이 모두 공한 상태니)

명예와 이득을 구하지 말고 영화도
구하지 말라 단지 인연따라 이 생을 지
남이로다

三寸氣消誰是主 百年身後誰虛名
삼촌기소수시주 백년신후만허명
衣裳破處重縫補
의상파처중중보

花鳥逢人亦不驚
화조봉인역불경
心曠如如只是是 何處菩提道不成
심경여여지차시 허려보리도불성

세치 기운 사라지면(죽음을 말함) 누
가 이 주인인가. 백년 수명 뒤에 부질없
는 허명뿐이라
웃은 해진 곳 겹겹으로 곱고

화조가 이 사람을 만나도 또한 놀라
지 않는다.
마음과 경계가 여여하여 단지 이와같
으니 어찌 보리도를 성취 못함을 열려
하겠는가

糧食無時旋旋盡
양식무시선선멸
一箇禪前無幾日 爲他期事長無明
일개환능능기일 위타환사장무명

宏智禪師病骨痛
광지선사병병성
訪舊維摩真可似 經年獨臥涅槃堂
방구회론실가상 경년독외열반당

양식 떨어지면 두루 돌아 다니노라.
한날 그림자 같은 몸 능히 몇날이나 되
길래(얼마나 산다고) 저 한가 한 일 위
하느라 무명만 길렀구나
靈芝律師前住持 勉學徒

“병든후 몸이 스스로 괴로움을 아나니
건강할 때 다른사람 위해 분주하여라”

(옛친구를 찾아가)옛일을 더듬어 심
회를 논하며 실로 슬프다.
해를 거듭하도록 홀로 열반당(죽음을
안둔 환자가 머무는 방·병든 스님을
치료를 하는 곳)에 누워 있으니

영지율사면주지 면학도
深悲末法實悲傷 佛法無人得主張
심치말법실비상 불법무인득주장

門無過客恣無氏 儘有寒灰南有霜
문무과객창무지 모유한회석유상
病後始知身自苦
병후시지신자고

심히슬프다. 말법이 실로 슬프도록 상
했구나 불법이 이를 주장할 사람을 얻
지 못함이로다.
未解讀文先坐講 不曾行脚便空堂
미해독문선좌강 부증행각변승당
將錢遊說如狂狗
장전유어여광구

문에는 지나는 이(그림자)도 없고 창
살엔 창호지 떨어졌으며 화로엔 불씨가
져 싸늘한 재분, 자리(병석)엔 서리가
서렸도다
병든 후 비로소 몸이 스스로 괴로움
을 아나니

경전의 묘미를 깨우치지 못하고서 먼
저 강론석에 앉고 일찍이 행각하지않고
도 곧 법당에 오르는구나
돈으로 짚을 다스리려 하는 꼴이 마
치 미친게 같고

鐘寺多爲別入忙
경사다위별인망
老僧自有安禪法 八苦交煎總不妨
노승자유안한법 팔고교전총불방

空寂高心以羶羊
공벽고심사이양
奉獻後賢休織此 免教地獄苦時長
봉헌후현휴계차 면교지옥고시장

건강할때 다른 사람위해 많이 분주하
도다. 노승은 스스로 편안한 법 있으니
팔고가 서로 짜어도 도무지 방해롭지
않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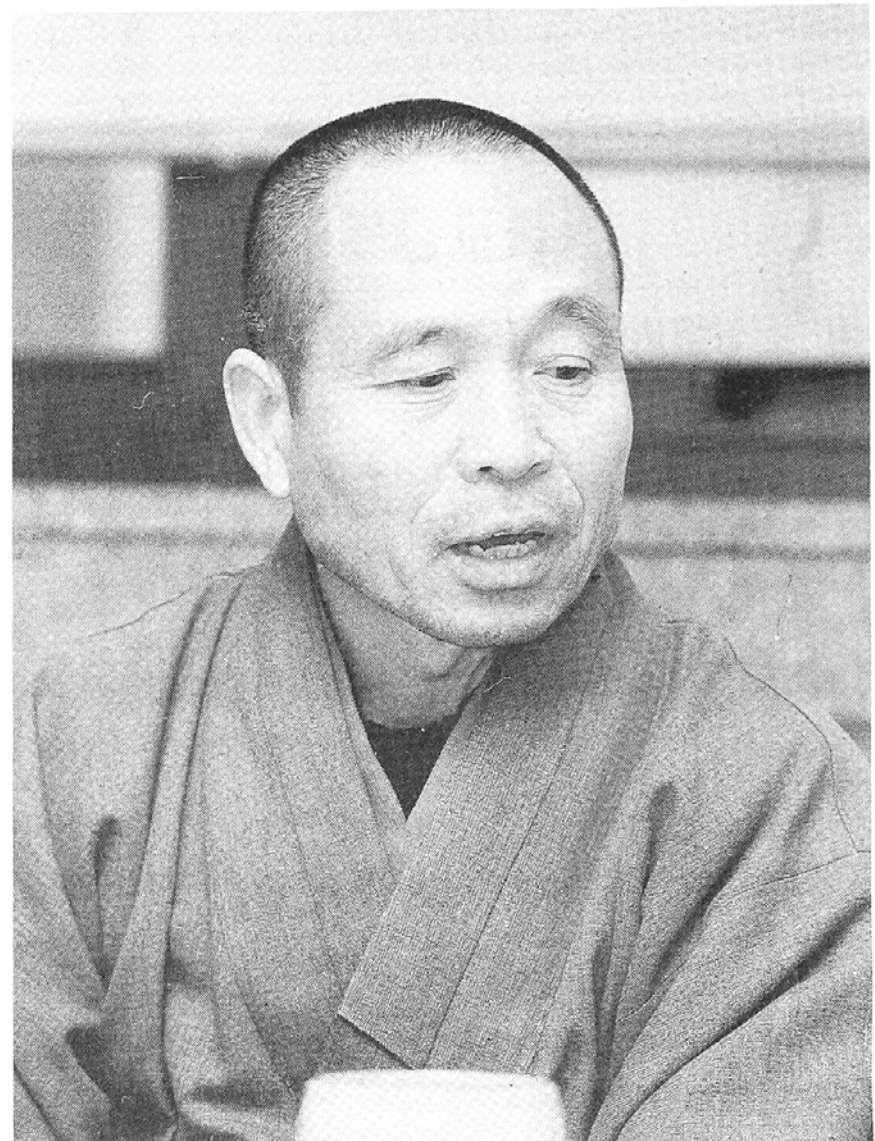
속에 든것도 없이 내노라 뽀내니 흡
사 양의 울음소리 같도다
후원들에게 받들어 권하노니 이를 본
받지 말라. 지옥의 길고긴 고통을 면하
도록하라.

洞山和尚自誠

龍眼

“苦海 안전하게 건너려면

각성스님 후산 화엄사 주진



약력

- 1938년 전남 장성 출생
52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도원스님 은사로 득도
동국대 역경원 번역·종의 위원
삼일선원 선원장, 화엄학회 회장
강해서(대도지지)(구사론)(수능엄삼해경) 등역·저서 다수

원래 진리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 소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
리는 말하기 이전에 그대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은 말 이전에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 근기에 따라 상근
기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중근기는 말을 들
어야만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
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법문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하근기는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중·하 세
가지 근기를 총망라해서 누구나 다 깨달아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한 것이
‘계·정·혜 삼학’입니다.

먼저 계(戒)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계에
서부터 10계, 보살 48계, 비구 250계, 비구
니 500계 더 나아가 삼천위의 팔만대세행
(三千威儀 八萬細行) 수많은 계법이 있지
만 그것을 집약해서 말하면 계의 가장 근
본은 오계·십선(五戒·十善)입니다. 오
계·십선은 간단명료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깨달음 방법을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
이 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오계·십선을 잘 이행하고 잘 지키고 닦음

“오계·십선 행함으로
누구나 깨달을수 있어요
극락이나 적멸락도
계의 공덕으로 가능해요”

으로써 여러가지 좋은 이익과 공덕을 성취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계(人間界)와 천
상계(天上界)에서 부귀와 향락, 즉 가장 안
락하고, 가장 쾌적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인천락(人天樂)을 성취 할 수 있고, 더 나
아가서는 성자재락(聖自在樂)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극락이나 적멸락(寂滅樂) 같은
것 까지도 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계
의 공덕이 이루어 말 할 수 없어서 율장(律
藏)이나 다른 여러 경전에서 계의 공덕
을 많이 찬양 했습니다.

그러면 오계·십선은 어떠한 것이냐? 쉽
게 말하면 착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가 착하고 평등하고 자유롭습니다. 다
시 말하면 자유자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인간은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자기
를 차별대우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 평등하기 때문에 모
두가 고르게 잘 사는 평등을 다 좋아합니
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억압하고 구속하
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지는 사람 감
옥에 넣어 응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은 구속이 아니라 원래 자유해탈(自由解脫)
즉, 그 자리가 원활한 자리이기 때문에 구속
을 싫어합니다. 또 인간의 본성은 착합니다.

본래 착한 것이 아닙니다. 성악설을 주장하
는 학자가 있지만 성악설은 인간이 후천적
으로 잘못된 의계의 관념이나, 의계의 오염
을 받아 인간의 본질이 변해 폭력에 의해
정신이 흐려지고 양심이 말살되었을 때 악
해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법률이나 교육, 도덕이 필요하다고 성
악설을 주장 한 것입니다.

인간이 평등과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는 첫째 착한일을 해야 합니다. 지악작선
(止惡作善), 나쁜일을 하지않고 착한일을
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
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착
한일을 하라고 하지 나쁜일을 하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간혹 사이비 종교가 혹세

무민하여 나쁜짓을 저지르는 과오가 있기
야 하지만 원래 그 근본지침은 아닙니다.
원리원칙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
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
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규율이나 규칙 모든 것
이 계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율은 한마
디로 선입니다. 선을 실천하면 바로 계율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선일 수 없습니다. 순리적으로 양심 그대로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선입니다.

참선을 하거나 도를 닦거나 열반하는 사
람이 나쁜짓을 하면 극락도 못가고 도도
통하지 못합니다. 나쁜짓을 하는 사람에게

도를 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그런
진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쁜짓을 하는
사람이 열반만 한다고 해서 극락에 갈 수
있다면 부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 말처럼 ‘부처님 전 상서’가 빗발쳐듯
나올 것입니다.

정(定)이라는 것은 본래 지극히 고요하고
빈자리인 마음을 찾는 것으로, 오염되고
잘못된 인상에 젖어있는 마음을 산란과 요
동이 없도록 안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생
각에 복잡한 잡념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그
도리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진리자체는
부동이기 때문에 만약 마음이 흔들리면 그
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 도리를 그 다음에 말한 것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 오신날에
전국 각 사·암단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본 감로기획에서는 두터운 불심을 바탕으로 현대 감각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옥의 설치용 장엄물로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불교위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되어
본 감로기획에서는 완벽한 디자인과 최고의 제품을 제작 보급합니다.

불기 2540년 5월 24일(음)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 오신날 축
원효사

불기 2540년 5월 24일(음)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 오신날 축
도선사

불기 2540년 5월 24일(음)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 오신날 축
조계사

* 사업 연합회 단위의 단체 주문 환영합니다.
* 주문을 미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로기획 전화 : (02)723-4306, 팩스 : (02)738-8682

부처님 오신날 설법자료, 홍보책자 보급안내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 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전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연등공양 이야기



수록 내용

- 제1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2 등을 밝히게 된 유래
1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3 등의 종류
2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의 식순 4 등을 밝히는 행사들
제2부 부처님 탄생 4부 관불의식
1 전생이야기 1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2 탄생이야기 2 부처님 오신날의 공덕
3 부처님 오신날의 공덕 3 등불공양의 공덕
제3부 등을 밝히며 2 등을 밝히게 된 이야기들
1 등을 밝히는 뜻 3 호거사의 등공양

※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0원 이상 주문시 표지에 사찰명, 법보시자, 법회 안내 등을 추가로 할애, 인쇄하여 드립니다.
초파일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보시 특가 / 1권당 1,200원 크기 / 신국판 x 64페이지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온라인
종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한일은행 170-105243-12-003
조흥은행 322-04-190572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82

부처님의 생애



※ “연등공양 이야기” 책자를 법보시 한 사찰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법보시 하시기 바랍니다.